

서늘한 바람

(『숨결이 바람 될 때』를 읽고)

박누리

모두가 자신의 가족에게 사랑을 전달한 일은 생각보다 드물다. 언젠가 저 먼 미래에 해도 된다는 마음의 막연함, 그리고 망상 속에서만 있었지 표현해 보지는 못했던 나의 마음들……. ‘죽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쾌쾌하고 외로운 감정을 느낀다. 과연 죽음이 나에게 언제 돌아오겠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한 적은 매우 드물다. 괜히 이 한마디로 슬픔을 내 마음 안에 넣고 싶지 않아서? 아, 난 지금 죽음의 외로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품어 왔던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언어에 비해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잡아 두었던 부정적인 마음들, 갑작스런 분노, 서로 간의 갈등, 그리고 힘듦. 과연 이 모든 마음들이 죽음, 즉 삶의 마지막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변할까? 깊은 숨결을 쉬고 높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마음의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폴 칼라니티는 『숨결이 바람 될 때』의 저자이자 책의 주인공이다. 그는 1977년 뉴욕에서 태어나 스탠퍼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생물학

을 공부했고, 영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문학과 철학, 과학과 생물학에 깊은 관심을 보이던 그는 이 모든 학문의 교차점에 있는 의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과학과 의학의 역사 및 철학 과정을 이수한 뒤 예일 의과 대학원에 진학해 의사의 길을 걸었다. 졸업 후에는 스탠퍼드 대학 병원으로 돌아와 신경외과 레지던트 생활을 하며 미국 신경외과 학회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연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렇게 열심히 의사의 생활을 해 오던 무렵 그에게 암이 찾아왔다.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려던 그가 꿈꾸던 모든 삶이 죽음으로 마무리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순간에도 레지던트 과정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삶을 책으로 담듯, 시간을 버리지 않았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이 시간이라는 존재를 걷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에겐 따뜻한 행복이었을까? 태어남과 동시에 인간은 죽음에 대하여 배운다. 죽음이 과연 고통과 투쟁해야 할 일인가? 아니면 삶에 대하여 마무리하고 정리해 보는 아쉽지만 충만한 일인가?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은 각자의 자아를 형성하고 나만의 길을 걷기 위해서다. 나만의 행복의 루틴과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인간으로서의 도리이다. 종교가 있다면 우리는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마주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하여 신께 기도하고 있는가?’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길을 걷는다. 우리는 결코 영생인이 아니고, 시작과 함께 언젠가는 삶과의 헤어짐, 즉 자만과의 경쟁에서 나약함만이 남을 존재이다. 또한 우리는 그 죽음

이 언제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도 없다. 그러기에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1분도 미루면 안 된다. 1분 뒤의 나의 모습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햇빛 찡찡한 여름이 지나고 서늘한 바람을 자랑하는 가을이 왔다. 가을은 하늘이 높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겪고 죽음을 마주하기도 한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죽음이라는 존재를 나는 폴 칼라니티를 보며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죽음은 너무 고통스럽고 외롭지만, 가족의 소중함과 나의 고향의 그리움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하다. 폴 칼라니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때 이 세상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현재 나와 같이 있는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께 더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는 이유 또한 그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를 통해 서늘한 바람에 갇힌 나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서늘한 바람에 갇혔을 때 우리가 후회하는 것, 반성하는 것은 무엇일까? 평소 우리는 삶의 고마움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아직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늘한 바람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들려올 때면, 우리는 느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매우 행복한 삶이었구나.’ 죽음을 마주하든 마주하지 않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 지금 이 순간 나의 사랑이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그리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말이다.